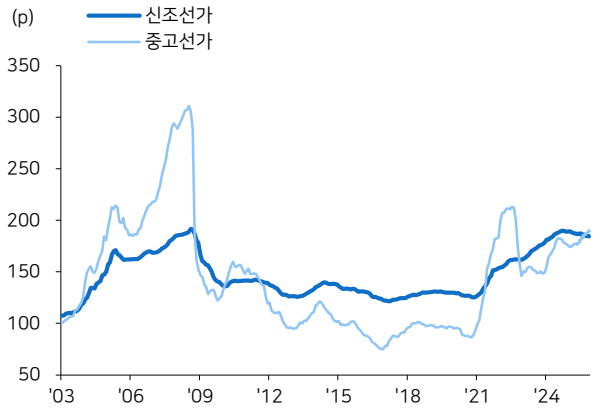
2025. 12. 11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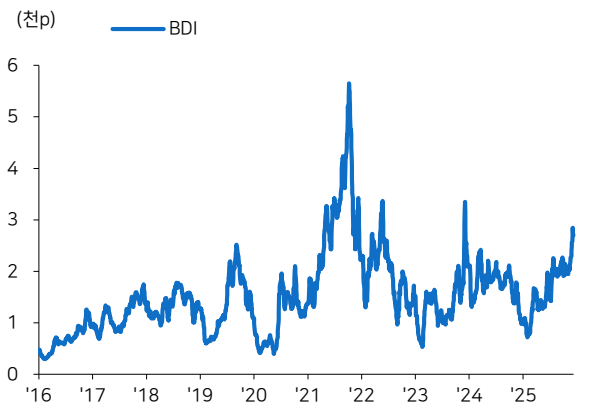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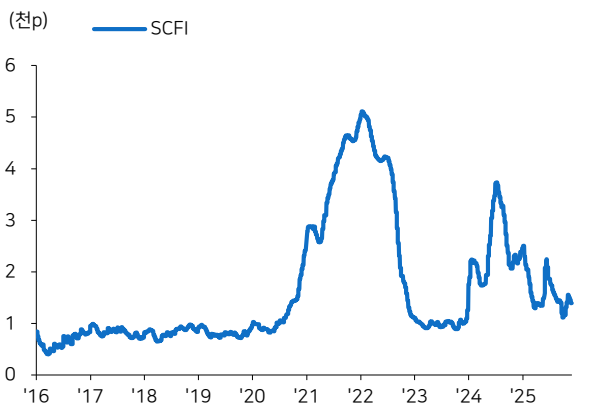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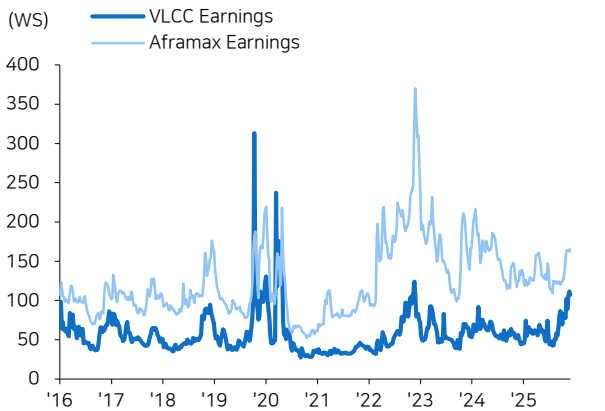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30.0p (-12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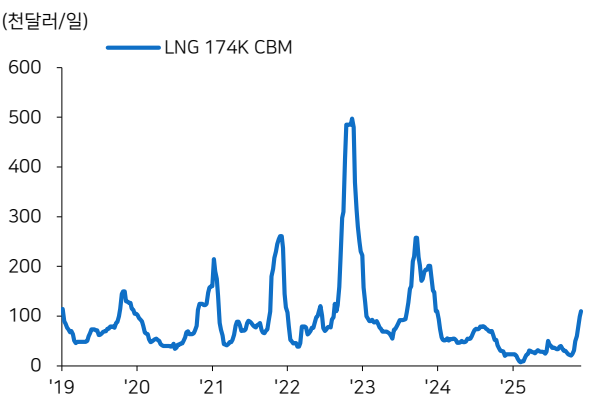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97.6p (-5.5p WoW)



VLCC Spot Rate 102.2WS (-5.0p WoW)



LNG Spot 운임 98.5천달러 (+1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방미 외교 2 차관 "美측에 '농축·재처리' 조속 실행 요구할 것" **연합뉴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하자고 미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김 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과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통해 조선·에너지·첨단기술·핵심광물 협력을 논의한다고 전해짐. 핵잠 연료 논의는 이번 방미에서 제외되고 대미 투자 이행, 비자 문제 해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등이 미국 측과의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예정이며, 핵잠 핵연료 관련 이슈는 내주 미국을 찾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고 보도됨. (https://zrr.kr/VOdLaw)

[통합 현대중공업 출범]⑤바뀌지 않은 배당정책 행보 배경은 **블로터**

HD현대중공업은 합병 후에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30% 배당 기조를 유지한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수익 배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도됨. 합병 초기에는 이익 합산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방산 MRO · 수출함정 등 본격적인 시너지는 2028년 이후 미국 물량 반영 시점부터 나타날 전망으로 알려짐. 합병 후 자금은 해외 조선소 M&A 등 신규 투자에 우선 배분될 예정이어서 밸류업 목표 상향은 시너지 가시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짐. (https://zrr.kr/qjH41Z)

Venture Global hits back at Shell over arbitration lawsuit **Upstream**

Venture Global이 올해 초 Shell의 중재 판정 불복 소송에 반박하며, Shell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속 고가 LNG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Calcasieu Pass 장기계약 조기 변경을 압박했고, 이를 통해 COD를 앞당겨 선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됨. Venture Global은 Shell이 중재에서 패하자 허위 정보 유포, 업계 내 영향력 행사, 부당한 압박 등을 동원해 판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난했으며, 중재 판정부 역시 2022년 당시 시설이 COD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Shell 측 증인이 인정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짐. 해당 사건의 향후 절차는 12월 12일 및 16일로 알려짐. (https://buly.kr/2Uk5BdJ)

Everllence testing ethanol as a marine fuel on smaller engines **TradeWinds**

엔진 개발사 Everllence가 4행정 메탄올 보조기관을 에탄올 연료로 개조해 성공적으로 시험했으며, 메탄올 대비 더 높은 에탄올 연료 비율도 구현했다고 알려짐. 에탄올은 공급성 · 가격경쟁력 면에서 선주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는 대체연료이며, 회사는 대형 2행정 메탄올 엔진까지 에탄올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으로 전해짐. Everllence와 WinGD는 이미 메탄올 듀얼연료 엔진을 상용화했고 Maersk 등과 함께 에탄올 · 혼합연료 시험 운항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https://zrr.kr/KgZBHM)

Nordic countries launch phase two of maritime decarbonisation plan **TradeWinds**

북유럽 국가들이 해운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2025~2027년 실행을 목표로 한 'Nordic Roadmap'의 2단계를 시작하며, 녹색 항로(Green corridor) 실현을 위한 협력 · 재원 조달 방식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보도됨. Everllence, Sintef Ocean, DNV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며, 현재 84개 그린 코리도어 중 실제 운영 중인 4개(그중 3개가 북유럽) 외에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실행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알려짐. (https://buly.kr/GE9Bh9z)

Morocco wants first FSRU in place by 2027 amid regas unit shortage **TradeWinds**

모로코가 2027년까지 첫 FSRU 기반 LNG 수입 터미널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기존 FSRU 확보 또는 이미 개조가 진행 중인 LNG선이 일정 충족이 가능한 옵션으로 보도됨.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 두 번째 LNG 수입 터미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남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세 번째 시설을 Dakhla 항만에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짐. 모로코는 산업 · 발전 수요 증가와 석탄 사용 감축으로 인해 가스 수요가 2027년까지 현재의 연간 12억 입방미터에서 약 80억 입방미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알려짐. (https://buly.kr/4QoPtMy)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